

두달만에... 다시 잠긴 우치동물원 조류관

AI 여파 관람금지... 독수리·솔개관 등 가이드라인 설치 열대 조류관 완전 폐쇄...4개 시·군 5개 농장 확진 판정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다시 전국 곳곳에서 발병하면서 광주 우치동물원도 실내 조류관을 긴급폐쇄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 관련기관과 지자체도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광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6일 AI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일부터 실내 조류관을 폐쇄하고 야외 조류사 주변에 차단 띠를 설치했다.

금강앵무, 뉴기니아앵무, 사랑앵무 등이 살고 있는 열대조류관은 완전히 폐쇄했다. 또, 펠리컨과 관학, 홍부리황새 등이 살고 있는 큰물새장과 독수리, 부엉이, 솔개 등이 살고 있는 맹금류사는 방문객들이 근접관람을 할 수 없도록 철창으로부터 약 3m거리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 AI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람객과 조류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다. 공원 정문에는 소독 카펫이 설치됐으며, 방역차량이 사육사를 돌며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에는 천연기념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총 53종 461마리에 달하는 조류가 있다.

우치동물원 성장민 진료계장은 "아직까지 AI가 광주에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른 만큼 당분간 조류관을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금지할 예정이다"며 "재개장 시기는 AI 진정 여부 등을 보이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12월에도 AI의 여파로 약 3개월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3월 재개장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AI 사태는 전북 군산에 있는 1만5000마리 규모의 닭농장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군산 농장에서 중간유통상과 재래시장 등을 통해 유통한 오골계 3600마리가 이번 AI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농장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익산시는 AI 발생지 반경 10km에 방역대를 설정, 예찰을 강화하고 목천동과 용동면에 거점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차량 2대와 공동방제단 차량 3대를 동원해 소규모 사육농가 73곳을 소독했으며 전통시장과 가



7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 동물원에 있는 큰물새장 앞에 방문객들과 조류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가이드 라인이 설치돼 있다. <우치동물원 제공>

든형식당의 산 닭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지난 6일 구이면 농가에서 AI 양성반응이 나온 전북 완주군도 이 농가에서 사육 중인 토종닭과 칠면조, 오리 등 가금류 15마리를 도살처분하고 이틀째 방역을 강화

했다.

이로써 확진 판정이 나온 제주시 이호동 등 제주 농장 2곳에 이어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농장은 제주·기장·파주·군산 등 4개 시·군, 5개 농장으로 늘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8:29
달맞이 19:45 달뜨기 04:32

다시 초여름 더위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조금	16/28	보성	구름조금	15/27
목포	구름조금	16/25	순천	구름조금	16/28
여수	구름조금	17/27	영광	구름조금	15/26
나주	구름조금	14/27	진도	구름조금	14/26
완도	구름조금	17/26	전주	구름조금	16/27
구례	구름조금	14/27	군산	구름조금	15/25
강진	구름조금	15/26	남원	구름조금	15/27
해남	구름조금	13/27	홍산도	구름조금	16/23
장성	구름조금	14/27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남서~서	0.5~1.5	남서~서	0.5~1.0	
남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0.5~1.5	
안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	
남바다(동)	서~북서	1.0~2.0	서~북서	0.5~1.5	
서부	남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53	01:36
	18:52	13:30
여수	간조	만조
	02:22	08:14
	14:14	20:55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	☁	☁	☁	☁	☁	☁
16/26	19/29	20/27	19/29	19/28	18/29	17/29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보통

'제2 도가니 피해' 5개월 넘었건만...

장애시설 이사회도 없이 무대책

대표이사과 시설장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횡령을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회가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가 속해 있는 '가교 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회 개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곳은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 중 한 명인 A씨가 이사로서 있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광주에버그린실버하우스' 앞이다.

대책위는 "가교 행복빌라의 대표이사과 시설장이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을 저지른 지 150일이 지났지만 단 한차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광주시에 북구는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임시이사 3명을 가교에 파견했다. 하지만, 이사 중 한 명인 A씨가 5월23일과 6월1일 두 차례나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개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교의 이사회 개회가 무산되면서 지난

3월 사임한 시설장을 현재까지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장애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광주시의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가교 행복빌라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와 보조금·후원금·장애수당 등의 횡령사건이 드러났지만 사회복지법인 가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신체적·경제적 학대를 당한 시설 안 장애인들을 치유하고 회계부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사회 개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교 행복빌라'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0명 중 19명은 영화와 소설 '도가니'로 알려진 복지법인 산하시설 옮겨온 아이들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설 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수당 등 보조금 2억9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신청한 가교 대표 이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웃음이 보약 7일 오전 광주 서구 S컨벤션에서 열린 광주시새마을회 주최 '행복 나눔 효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위문공연을 보며 박수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남구도 평화의 소녀상...내일 추진위 발족

이이남 작가 제작...8월 제막

광주시 남구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 소녀상 제작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잘 알려진 이이남 작가가 맡는다.

7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 남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오는 8월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을 즈음해 제막을 목표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로 했다.

건립 장소는 16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길 공원이거나 양림동 교회(3·1만세운동 발생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소녀상의 형태는 이달 말 정해될 예정이다. 비용은 주민 모금으로 마련한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9일 발족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 최영호

남구청장, 강원호 남구의회 의장, 안영석 남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성현출 남구 문화원장, 채선필 샘신헌 이사장, 박기수 남구 청소년수련관장, 노영숙 오월어머니집 관장, 이이남·한희원 작가, 박순애 수피아여고 교사 등 45명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다.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소녀상 건립 배경을 설명으로 발표한다.

정진백 건립위 상임 집행위원장은 발족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 규명, 일본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한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는 '위안부' 관련 강연을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파트 베란다서 80대 숨진채 발견

양팔·얼굴에 멍...타살 가능성

지난 6일 밤 11시55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고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A(82·여)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5㎡ 크기의 베란다 창고 안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딸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양팔과 얼굴에서 멍이

발견됐고, 질식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율혈 등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A씨는 중풍을 앓고 있으며 혼자 지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 등의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타살가능성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심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친시장
 2~5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원 환영
 6 783㎡ | 전문병원원리뷰 폐쇄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해남 [新] 프리미엄
101스퀘어 상가분양·임대

해남 101스퀘어
 해남 [중심상거리] 누구나 탐내지만 모두가 가질수 없는 해남 중심!
 새롭게 부상하는 그 곳, 황금알을 낳는 해남군청 중심상권의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해남군청 바로 앞!
 [구. 광주은행 해남점]
 해남의 중심에서 성공을 목격하다!

- 광역접근성 - 전남지역 사민주관망도, 진도, 강진, 해남을 아우르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 행정교육의 중심 - 군청, 법원, 세무서 모든 행정은 물론 위치 - 해남고, 해남중학교, 해남초, 해남제일중, 해남초의 배후 교육 중심지
- 복합 테마상가 - 푸드, 의류, 의료, 미용, 학원, 법조특화 등 다양한 복합 테마상가 - 폭발적인 인구증가 및 유동
- 안정된 수익 - 초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투자성공 - 안정된 임대수익으로 대체불가 상품 - 두번 다시 없을 프리미엄 가치보

분양·임대 **1577-1901**

세종 11 | 1주금상
 세종 11 | 진보통합건설(주)